

박영재 서강대 교수
'통찰과 나눔'은 하나
"날마다 선행 합시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1일) · 주간

제952호 2013년 8월 7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육조단경

깨달음의 지혜는 본래 있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급증하는 흰개미에 목조 문화재 '비상'

한반도 아열대화, 사찰 흰개미 피해 대책은?

기후변화로 목조건물인 사찰의 흰개미 피해가 심각하다. 해당당국에서도 긴급방재가 실시되는 가운데 종단차원에서도 매뉴얼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29일 부산 범어사 등에 긴급보수비 예산을 지원해 방재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긴급조치가 진행된 사찰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제하당, 보은 법주사 대웅전 및 관음전과 나한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과 제하당, 내소사 대웅보전과 지장암 등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요목조문화재 321건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 내역을 보면 사태는 심각하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77개 목조건물에 대해 흰개미 피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모든 조사 대상 지역이 흰개미 피해를 입었다.

조사를 담당한 서민석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피해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에 위치한 사찰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남 부안 내소사의 경우 보물 291호인 내소사 대웅전과 지장암 건물이 흰개미로 인해 붕괴 직전에 처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체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에서도 흰개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스님들의 거처인 일로향각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보물 434호인 대웅전 옆 관음전까지 흰개미가 덮쳤다는 것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김천 직지사, 고창 선운사 등 1500년 이상 된 고찰들 역시 피해가 감지됐다.

현재 문화재청은 이들 사찰에 흰개미 번식을 막는 군체제거시스템이 설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올해 목조문화재 조사 결과
대상 77곳 모두 흰개미 피해

범어사, 법주사 등 4곳
문화재청 긴급 방충 시작
사찰들 수시로 군불 넣고
식생 정리해야 피해 줄어

할 예정이다. 특히 보은 법주사의 경우 내년경 방충 사업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흰개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 정비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2월 14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문화재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는 전국사찰의 흰매기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주요사찰의 방재라인에 자리한 나무 그루터기와 장작더미 등을 제거하고 전각 후면의 습한 환경으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흰개미의 서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09년 흰개미 탐지견과 탐지장비로 전국 사찰과 사적 16개소 231개 동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33.8%인 78개 동이 흰개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재 교수는 "당시 해인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종무소까지 피해가 있었다"며 "흰개미 방재는 목조 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등 주변 정비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흰개미 서식의 자가 점검 내역으로 기둥 바닥의 목재부스러기 유무, 천장의 빗물 누수 현상 등을 들었다. 또 사찰에서 마루 구들에 군불을 넣고, 주변 수목을 정리해 흰개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문화재청 조차 생물피해 분야에는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분야는 보수, 단청, 실측, 설계, 보존과학 등으로 방재는 속하지 않는다. 불교계의 경우도 이 분야에서는 전적으로 당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일부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예방 대책을 세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에 흰개미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등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생물피해관리 매뉴얼을 지난 6월 배포했다"며 "9월 초 방제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템플스테이' 배운다

중앙승가대 · 문화사업단 5일 산학협력 협약

중앙승가대에 이르면 내년부터 '템플스테이'가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 학사운영에 반영된다.

중앙승가대(총장 대행 미산)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7월 5일 산학협력 협약식을 열고 템플스테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승가대는 포교사회학과 전공과목 내에 템플스테이 과정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 제반 환경을 내년 3월까지 준비하게 된다. 또한 교육 과정과 콘텐츠 개발, 교육 수요도 조사 및 분석 등 연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양성을 위한 연구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교과 과정 개발은 현재 운영 중인 기초과정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진행되며, 추후 실무 과정, 국제화 과정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도 확대된다.

또한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템플스테이 아카데미(가칭)'을 설립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양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산학협력 협약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위한 사업 방안을 논의해왔다. 6월에는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설명을 개최했으며, 중앙승가대가 정규 과정 운영을 위한 개발 과정에 동참할 뜻을 보여 협약이 성사됐다.

템플스테이 정규과목 편성
내년 3월까지 교육환경 마련
아카데미 운영… 인력 양성
자격증 제도 도입도 추진

이번 협약에 대해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 인력 교육 체계의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템플스테이의 질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학술도서 선정 과정 밝혀라"

불출협 올해 선정에 항의… 5일까지 해명 촉구

불교계 출판사 모임인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이하 불출협)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불출협은 7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불출협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종교 분야에 총 8종이 선정됐으나 불교 관련 도서는 한 종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정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술도서 출판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출협은 도서 선정 단체인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에 '종교' 분야에 '불교학'을 제외시킨 것인지를 비롯해 △불교 전공자가 전무한 심사위원 △불교학 분야 심사위원 명단과 전공 분야 공개 △일련에 과정 등을 8월 5일까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불출협회장 지홍 스님은 "책 1, 2권이 더 선정된다고 해서 출판사의 경제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반발 하는 것은 불교 전문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 서적을 심사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불교계 전문가가 입회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이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반성했을 것"이라며 "심사 위원 추천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지명해 회신했음에도 진흥원 측은 자기 편의대로 심사를 진행했고,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질 낮은 학술서들이 선정됐다. 사실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출판계에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952호 INDEX

종합 2·3
군법당 지역불교 교육센터로
문화재 영문 표기 기준 마련
세계 한국 사찰 앱으로 만난다

시방세계 5
불자 청소년 철원 DMZ 평화순례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제천 정방사- 얼음골 휴양림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선불화 '쌍림열반도' 日서 500년만의 귀환

군산 동국사, 31일 이운 법회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시대 불화 '쌍림열반도'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7월 31일 대웅전에서 '쌍림열반도' 이운 법요식을 봉행하고 환수 과정과 문화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는 가졌다.

이번에 공개된 '쌍림열반상도'는 가로 225㎝ 세로 93㎝ 크기의 마(麻) 소재 바탕에 그린 진채(眞彩) 불화로 위쪽에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주로 녹색과 적색의 석채 안료와 금분을 사용해 그린 부처의 열반 당시 장례모습이 모두 담겨있으며 여덟 왕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부처님을 중심으로 보살들과 제자들이 애도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유일한 가로형의 열반도 걸개그림으로써 조선시대 불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고(最古)본 팔상도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림을 감정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고증을 거쳐 국적과 제작연대가 확인되면 사상 최초로 발견된 가로형 열반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지 종걸스님은 "약탈문화재로 확인될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간주도로 환수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0대 회장단 취임식 대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위문법회 봉행

감사의 인사말씀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에서는 제10대 회장단 취임대법회를 대신하여 지난 28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위문 대법회를 갖고 훈련병 5천명에게 설법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서 단주 5천개와 다과 5천명분을 전달했으며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하는 인간방생에 힘썼습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1995년 4월 15일에 창립하여 매년 크고 작은 행사와 불우이웃돕기, 수재민돕기, 군부대 위문, 교도소 교화와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소속 각 종단 종정예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호국연무사 현조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2013)년 7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석월인 화남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 2층 216-1호 / 전화 042)285-1227
●사 무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 전화 02)756-122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0대 회장단


회장 석 월 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부회장 석 청 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석 청 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부회장 석 룡 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